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지수 138p, 중고선가지수 141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지수는 138p(+1p, WoW), 중고선가지수는 141p(+1p, WoW)를 기록함. 지난주 중국 Hudong Zhonghua는 Evergreen선사로부터 24,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함. (Clarksons)

배 지을 자리가 없다

현재로서는 일본 조선업체들이 조기 인도 조건으로 신조선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많음. 한국은 올해 신조선을 대대적으로 수주했고, 중국은 해군함정 건조로 인도 슬롯이 완전 매진됨. (선박뉴스)

US drillers add rigs for second week in a row

2018년이후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시추업체는 이번주 9개 굴착장치를 더해 총 470개의 장비를 갖춘. 오일, 가스 설비 각각 8개, 1개씩 더함. 캐나다는 24개 설비를 더해 총 117개 설비를 갖춘. (Upstream)

中, LNG 최대 수입국으로 등장

올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도됨. 중국의 1분기 LNG수입량은 +30% YoY 증가함. 중국의 수입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삼성중공업,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

삼성중공업은 내일(22일)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열 것이라고 보도됨. 동사는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함.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1,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통해 발생하는 납입자본금 2조 5,000억원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계획. (뉴스1)

대선조선, LNG추진 어업실습선 수주

대선조선이 경상국립대학교로부터 4,200톤급 LNG추진 어업 실습선 1척을 수주함. 선가는 약 450억원이고, 2023년 인도예정임. 대선조선은 올해 총 21척을 수주하였다고 보도됨. (선박뉴스)